

산업 및 직업별 근로장소 유형

이 성 용
(강남대학교)

I.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IMF의 정책 요구에 따라 금융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부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33개의 은행 중 1/3인 11개의 은행을 정리하였고, 종금사는 70%, 신용금고는 33.8%를 정리하였다(금융감독위, 2000.9, 여기서는 이종선 2002년 26쪽에서 재인용).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들의 해직과 직결된다. 1998년 1단계 은행구조조정으로 은행을 떠난 일반직원은 그 당시 전체 인원 11만 4,919명중 34%인 3만 9,015명에 달했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1996년 1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은행권(신용보증기금 등 포함) 퇴직인원은 총 78,642명에 달한다고 한다(김동환, 2001).

게다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정리해고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도 등은 수많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그들의 직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개혁도 많은 직원을 해고당하였다. 물론 200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된 뒤 그 자리들이 상당부분 채워졌다. 하지만 상당부분 그 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등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이종선, 2002; 채구목 2002).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산업, 직업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구조에 분명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은기수(2002)는 1995년과 200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과 2000년 산업구조와 직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구조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제조업분야의 비율은 감소하고 서비스분야의 분야는 증가하고 있다. 또 직업구조 역시 고위직,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 및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기능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리고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경기가 약간 회복된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는 2005년 센서스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해방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급격한 사회변동은 세대마다 각 성원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하기 쉽다. 특히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0년대 고등학교 연합시험제도, 그리고 1980년대 대학의 졸업정원제 제도 등은 개인이 종사할 산업과 직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령별로 종사하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그리고 교육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센서스에 처음으로 근로장소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전에는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취업형태, 취업시간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고,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부문에서 탈락한 경제활동인구들이 자영업 중심의 비공식부문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고정된 근로장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폐들러라고 표현되는 길거리 혹은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급종사자들 가운데는 가족노동을 배경으로 한 자영업이 많고, 이들 또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 2005 인구센서스에 포함된 근로장소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및 성, 연령, 교육 등은 인구학 변수까지 함께 고려하여 근로장소가 얼마나 다양한지 분석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1995년, 2000년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산업, 직업, 그리고 종사상지위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2005년 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 구조를 분석한다. 셋째,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소 유형을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및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관계를 분석한다.

II. 직업, 산업 및 종사상 지위의 구조 변화: 1995-2005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5년 1차 산업 11.8%, 2차 산업 23.6%, 3차 산업 55.1%에서 2000년 1차 산업 10.6%, 2차 산업 20.3%, 3차 산업이 61.6%를, 그리고 2005년에는 1차 산업이 7.9%, 2차 산업 18.5%, 3차 산업 73.5%로 변화하였다(노동연구원, 2006). 이는 외환위기 직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은 증가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제조업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업 위주의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정이환, 2004).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당연히 직업구조의 변동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으로 해고당한 많은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최문경·이명진, 2005), 종사상지위 구조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1. 직업별 변화

<표 1>를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2000년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5년 대폭 감소하였다.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 이래 계속 상승하는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감소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전문직' 과 '기술공, 준전문가' 를 동일하게 전문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정이환, 2004),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종사할 것으로 추측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장

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율을 1995년 이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과 2000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 갑자기 떨어졌다. 사무 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 이래 계속 상승하고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율은 2000년 상당한 폭으로 하강했다가 2005년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1995년 이후 급상승했다(2005년 자료의 분류불능을 단순노무자로 합한다면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직업구조의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6	3.4
전문가	5.7	8.9	9.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1	7.4	8.4
사무 종사자	11.5	14.3	15.3
서비스 종사자	8.6	9.7	9.3
판매종사자	12.6	12.7	10.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6.0	13.6	1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7	10.6	9.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10.6	10.6
단순 노무 종사자	5.5	7.6	7.3
분류불능			0.7
합계	100.0	100.0	100.0

<표 2>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직업구성비의 변화를, 그리고 <표 3>은 직업부문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부문에서 남성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이 부분의 성비가 비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 직업 부문에서 남성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말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증가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고, 그 결과 성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 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했지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간 급반등했다. 하지만 성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하락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이들테면 제조업분야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해고가,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반등에는 서비스 부문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이들테면, 교육서비스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부문은 1995년 남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사무종사자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보다 더 하강하였다. 여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강한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은 2000년 하강하였다가 2005년 약간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성비의 추세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2005년 급상승한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무 종사자 집단과 판매종사자 집단도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 및 판매종사자 집단과는 반대로, 사무종사자 집단의 성비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이후 전문직 집단과 판매종사자 집단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수로 새로이 진입하는 반면, 사무 종사직은 여전히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여전히 많음을 암시한다.

서비스 종사직은 1995년 이래 여성이 압도적인 직업 부문이다. 남녀 모두 구성비는 2000년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 다시 하강하였다. 그러나 성비가 계속 하강하는 추세는 여전히 새로이 이 부문에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더 많음을 암시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율도 2000년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 다시 하강하였다. 그러나 성비는 2005년 와서 약간 하강했다.

요컨대, 제2차 산업관련 직업 종사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관련 종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산업 관련 직업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이 외환위기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직업구조의 성별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3	6.9	5.0	0.6	0.9	0.9
전문가	5.8	8.3	7.8	5.8	9.8	11.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4	8.4	9.4	8.7	5.9	6.8
사무 종사자	9.7	13.1	14.3	14.8	16.3	16.7
서비스 종사자	5.2	5.8	5.6	14.8	16.1	15.0
판매종사자	10.7	10.4	8.8	16.2	16.6	13.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2.7	11.3	13.3	21.7	17.2	1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0	13.6	13.0	7.8	5.6	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2	14.3	14.0	4.7	4.5	5.4
단순 노무 종사자	5.8	7.9	7.9	4.9	7.1	6.5
분류불능			1.0			0.2
합계	100.0		100.0		100.0	

<표 3> 직업별 성비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04.4	1,283.8	828.9
전문가	176.9	139.4	104.7
기술공 및 준전문가	259.3	231.7	213.5
사무 종사자	120.5	131.3	131.8
서비스 종사자	64.6	59.1	57.7
판매종사자	120.9	102.6	103.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08.7	108.1	10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9.5	397.0	48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44.4	530.1	402.6
단순 노무 종사자	215.7	183.7	187.9
분류불능			735.4
전체 취업자 성비	183.7	165.1	154.5

2. 산업별 변화

<표 4>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부문, 건설업, 그리고 도매업 및 소매업 등 네 부문의 취업자 비율은 1995년 65.5%, 2000년 58.0%, 2005년 56.2%로 감소하였지만, 1995년 이래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취업자들이 특정 산업 부문들에 집중되어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의 종사자 비율은 직업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 하락했지만 2005년 상승했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계속 하강하고 있다. 건설업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신업종사자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증가는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를테면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의 감소는 직업부문에서 판매종사자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1995년과 2000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5년 하강하였다. 직업구조와 마찬가지로 성별 구성비와 성비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4>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5

산업분류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6.4	13.8	16.2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4.1	21.3	18.6
건설업	8.6	7.2	7.1
도매 및 소매업	16.9	15.7	14.3
숙박 및 음식점업	6.4	7.5	7.5
운수업	4.6	4.8	4.3
통신업	0.8	1.2	1.1
금융 및 보험업	3.6	3.7	3.1
부동산 및 임대업	1.5	1.7	2.3
사업서비스업	2.9	4.3	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3.9	3.8
교육서비스업	5.3	6.0	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2.3	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8	1.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	4.3	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4	0.5	0.5
합계	100.0	100.0	100.0

<표 5>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산업구성비의 변화를, 그리고 <표 6>은 산업부문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5>는 남성과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 부문이 다름을 보여준다. 남성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건설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집중적인 네 개의 산업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남자는 1995년 68.8%, 2000년 60.6%, 2005년 59.8%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995년 70.5%, 2000년 64.9%, 2005년 61.5%로 감소하였다. 남자보다 여자가 특정 산업부문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5년과 2000년 사이 남녀 각각 집중적인 네 개의 산업부문 종사자 비율의 급격한 하락률은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말해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었는데(정이환 2004), 네 개의 산업부문은 탈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산업분야라기보다 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남녀 모두 2000년 감소했다가 2005년 다시 상승하였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비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뒤에 보여주겠지만, 이 부문 종사자의 높은 연령대를 비추어 볼 때, 성비의 감소는 여성보다 낮은 남성의 기대수명을 상당히 반영할 것이다. 즉 이 부문의 새로운 종사자들은 많은 경우 남녀가 동시에 진입해오지만 남성의 낮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이 부문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표 5> 산업구조의 성별변화, 1995-2005

산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3.5	11.5	13.5	22.2	17.7	20.2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6.8	24.1	22.0	19.2	16.6	13.4
건설업	12.1	10.5	10.8	2.2	1.6	1.5
도매 및 소매업	16.4	14.5	13.5	17.8	17.8	15.6
숙박 및 음식점업	3.7	4.3	4.4	11.3	12.8	12.3
운수업	6.5	7.0	6.3	1.0	1.1	1.2
통신업	0.9	1.4	1.4	0.5	0.9	0.7
금융 및 보험업	2.8	2.9	2.6	5.1	5.0	3.8
부동산 및 임대업	1.8	2.2	2.7	0.9	1.0	1.5
사업서비스업	3.3	5.0	6.2	2.2	3.1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9	5.0	4.7	1.9	2.0	2.3
교육서비스업	3.8	4.0	4.0	7.8	9.4	1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	1.3	1.6	2.9	4.0	6.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9	2.0	1.2	1.6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3	4.3	4.2	2.8	4.3	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3	1.0	1.1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취업자의 이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남성보다 여성의 더 많은 이동을 반영한다. <표 6>의 성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건설업은 운수업과 더불어 남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부문이다. 1995년과 2005년 성비 추세를 보면, 건설업의 성비는 증가한 반면 운수업의 성비는 감소하였다. 이는 건설업에 비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남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2005년에 갑자기 하락하였다. 성비는 2000년 상당히 하락하여 2005년 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숙박과 음식점 부문은 남녀 모두 외환위기 이후 그 비율이 증가했다. 이 부문의 성비

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말한다¹⁾).

통신업은 남성의 구성비 비율이 외환위기 증가한 이후 그 수준으로 남아 있는 반면, 여성의 구성비 비율은 2000년 증가하였다가 2005년 약간 감소하였다. 성비는 비교적 높으며, 2000년 감소하였다가 2005년 증가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남성이 여성이 거의 같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남성과 여성의 종사자 비율은 2005년 감소하였다.

부동산과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문은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성비는 2005년 상당히 감소하였다. 부동산과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구성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고 성비는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직업구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2차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3차산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 3차 산업 부문에 남성 노동자들보다 여성 노동자들의 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 산업구조의 성비변화, 1995-2005

산업분류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13.4	107.8	103.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256.4	239.8	253.0
건설업	1,040.4	1098.5	1104.0
도매 및 소매업	169.0	134.8	133.1
숙박 및 음식점업	60.3	55.1	55.0
운수업	1,175.7	1,032.4	821.5
통신업	345.7	258.8	286.9
금융 및 보험업	98.6	94.2	106.2
부동산 및 임대업	349.6	353.3	273.7
사업서비스업	274.9	265.9	2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66.4	403.9	316.2
교육서비스업	89.7	71.0	6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3.1	52.0	3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95.1	197.4	168.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85.2	163.2	15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49.8
전체 취업자 성비	183.7	165.1	154.5

3. 종사상지위 변화

<표 7>은 1995-2005년 사이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다. 임금 봉급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00년에 그 비율이 약간 증가했지만 2005년 다시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계속해 하강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

1)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부문은 자영업자가 50%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비율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는 부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이 부문의 많은 남성 종사자들이 다른 산업 부문 혹은 실직상태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고 있다. 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종사상 지위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7.2	6.7	6.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2.0	22.3	23.7
무급가족 종사자	10.7	9.2	9.3
임금·봉급근로자	60.1	61.8	60.7
합계	100.0	100.0	100.0

<표 8>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의 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8>은 성비에 따라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은 임금 봉급근로자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순인 반면, 여성은 봉급근로자 다음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순이다. 이러한 순서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추세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는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남성은 그 구성비가 1995년과 2000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급감한 반면, 여성은 2000년 급등했다가 2005년 미미한 감소를 하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남자는 계속 감소한 반면, 여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여성의 경우 2000년 급락하였고, 2005년에도 약간 감소하였지만, 남자는 2000년 약간 떨어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남성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 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반면,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의 상당수가 임금 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은 종사상 지위의 범주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남자 4-5명당 여자 1명이라는 높은 성비를 보여주는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 반대로 여자 7-10명당 남자 1명이라는 낮은 성비를 나타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금 봉급 근로자도 높은 성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여성들이 임금 봉급 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8>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종사상 지위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9.4	8.9	8.4	3.2	3.1	3.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5.3	26.0	28.1	15.9	16.2	16.8
무급가족 종사자	1.9	1.6	1.6	26.8	21.6	21.2
임금·봉급근로자	63.3	63.4	61.8	54.1	59.1	5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 종사상 지위의 성비 변화, 1995-2005

종사상 지위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548.7	478.1	41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93.1	264.9	258.6
무급가족 종사자	13.0	12.3	11.8
임금·봉급근로자	214.9	177.4	162.1
전체 평균 성비	183.7	165.1	154.5

Ⅲ. 연령별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및, 근로장소의 구성 분포:

2005년 센서스

1. 연령별 직업구조 분포

<표 10>은 2005년 센서스에서 계산한 연령별 직업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에 따라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직업의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0대 미만의 경우, 사무직(26.8%)과 전문가(16.1%), 기술공(12.7%), 판매직(10.5%), 장치, 기계조작(10.2%), 서비스직(9.2%), 기능원(7.2%) 등에서 약 93%가 종사하고 있다. 30-39세의 취업자는 동일한 직업군—하지만 많이 근무하는 순서는 다르다. 사무직(21.5%), 전문가(12.7%), 기술공(11.9%), 판매직(11.2%), 장치 기계조작(11.2%), 기능원(11.0%), 서비스직(9.0%)—에서 약 88%가 근무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1956-1965년 출생자)인 만40-49세는 위의 직종에서 약 77.5%가 근무하고 있다. 베이비붐 바로 이전 세대인 만50-59세 취업자는 위의 직종에서 약 60%가 종사하고 있다. 40세 미만의 취업자와 만40-59세의 취업자들을 비교할 때, 만40-59세의 취업자는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집단인 의회의원 직종에는 40세 미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지만 또한 직업위세가 낮은 집단인 단순 노무직에도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베이비붐 직전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농업과 어업 분야 그 리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60세 이상의 경우는 매우 높다. 특히 70세 이상의 취업자 경우는 무려 약 85%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반면 나이가 먹은 세대일수록 단순노무직과 농업 어업 분야에서 종사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1차 산업이나 2차산업보다 3차산업 관련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직업위세의 직업군인 의회의원과 낮은 직업군인 단순노무직에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입할 연령대에서 가장 심한 양극화된 사회불평등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10_1> 연령별 직업 분포(백분비)

	의회의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 어업
전체	3.4	9.3	8.4	15.3	9.3	10.5	15.8
30세 미만	0.4	16.1	12.7	26.8	9.2	10.5	1.6
30-39세	2.4	12.7	11.9	21.5	9.0	11.2	3.3
40-49세	5.3	7.8	7.6	13.3	11.8	12.0	8.9
50-59세	5.5	5.2	5.1	7.7	10.4	10.5	22.5
60-69세	2.7	2.4	1.8	2.4	4.1	6.5	58.9
70세 이상	1.0	1.2	0.7	0.9	1.4	3.8	84.6

<표 10_2> 연령별 직업 분포(백분비)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 노무	분류불능(군인포함)	합계
전체	9.5	10.6	7.3	0.7	100.0
30세 미만	7.2	10.2	3.9	1.4	100.0
30-39세	11.0	11.2	5.0	0.8	100.0
40-49세	12.0	13.1	7.7	0.6	100.0
50-59세	9.9	11.6	11.4	0.4	100.0
60-69세	3.9	4.5	12.6	0.1	100.0
70세 이상	1.0	0.7	4.6	0.0	100.0

2. 연령별 산업구조 분포

30세 미만의 취업자는 약 66%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22.6%), 도매 및 소매업(16.9%), 사업서비스업(8.9%), 교육서비스업(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0%)에 근무하고 있다. 만 30-39세의 취업자는 약 58%, 만40-49세 취업자는 49%, 만50-59세 37.5%, 만60-69세 19.7%, 70세 이상은 불과 8.4%만이 위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로 종사하는 그리고 종사해왔던 산업부문이 연령별로 극명히 차이나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취업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농업 임업 어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직업구조의 분포분석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세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세대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부문이 달라지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11_1>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백분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체	16.2	18.6	7.1	14.3	7.5	4.3	1.1	3.1
30세 미만	1.7	22.6	4.6	16.9	6.6	2.6	1.6	4.2
30-39세	3.5	22.3	8.2	16.3	6.4	4.0	1.6	4.6
40-49세	9.1	21.5	9.3	15.1	10.1	5.2	1.1	3.1
50-59세	22.9	14.7	8.0	12.8	8.9	6.5	0.7	1.7
60-69세	59.7	5.9	3.0	8.1	4.1	3.0	0.2	0.6
70세 이상	85.5	1.9	0.5	4.9	1.3	0.5	0.0	0.1

<표 11_2>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백분비)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 문화	기타 공공수리	분류 불능	전체
전체	2.3	5.4	3.8	6.4	3.3	1.9	4.2	0.5	100.0
30세 미만	1.0	8.9	3.3	9.9	8.0	3.3	4.1	0.5	100.0
30-39세	1.7	7.2	4.9	8.1	3.9	2.3	4.6	0.4	100.0
40-49세	2.2	4.0	4.1	6.1	2.3	1.6	4.6	0.6	100.0
50-59세	3.3	3.7	3.9	4.6	1.7	1.3	4.5	0.8	100.0
60-69세	4.7	3.0	1.1	1.8	0.9	0.7	2.7	0.5	100.0
70세 이상	1.5	0.9	0.6	0.3	0.4	0.2	1.0	0.2	100.0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 기관포함.

3.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

<표 12>는 연령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과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40-49세를 정점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락한다.

연령별 직업 구성, 산업 구성 그리고 종사상 지위 구성의 분포가 보여주듯이, 연령별로 각 분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

<표 12> 취업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백분비)

	임금노동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전체	60.7	23.7	6.4	9.3	100.0
30세 미만	91.7	4.1	1.2	3.0	100.0
30-39세	75.6	13.6	5.8	5.1	100.0
40-49세	57.4	23.7	9.9	8.9	100.0
50-59세	44.8	33.5	8.5	13.2	100.0
60-69세	23.3	50.8	4.0	21.8	100.0
70세 이상	6.9	69.9	1.8	21.4	100.0

4.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은 1954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에 도달했다. 그 후 1969년 7월 15일 교육혁명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무시험제가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 후 1970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6대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제도는 1956년생 이후의 출생자에게 그 이전의 출생자보다 높은 중학교 진학률을 제공했다. 그 후 4년 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는 고등학교를 본고사 대신 연합고사를 통하여 진학하게 하였다. 국가연합고사제도는 1975년 대구, 광주, 인천에서,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에서.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베이비붐세대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12>는 연령별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인 6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확실히 초등학교 수준이하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물론 70세 이상이 더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지만, 만60-69세 취업자의 경우도 무려 약 62%가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개혁은 만50-59세(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출생자)의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의 비율이 약 27.2%로 이전 연령대보다 무려 35%가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 비율은 만40-49세 취업자에서는 다시 7.3%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만 40세 이하의 취업자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이하가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취업자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70세 이상의 취업자는 불과 3.8%만이 대졸이상이었지만, 만60-69세 8.2%, 만50-59세 18.6%, 만40-49세 33.6%, 만 30-39세 52.9%, 만30세 미만 65.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은 연령별 취업자산업구조, 직업구조, 그리고 종사상 지위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표 13 > 취업자의 연령별 교육수준(백분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전체	4.0	11.6	10.2	36.3	33.7	4.3	100.0
30세 미만	0.1	0.2	1.2	32.9	62.8	2.8	100.0
30-39세	0.1	0.7	2.9	43.5	46.6	6.3	100.0
40-49세	0.5	6.8	14.2	44.2	28.6	5.0	100.0
50-59세	2.7	24.5	21.9	32.3	15.0	3.6	100.0
60-69세	18.2	44.0	15.1	14.5	6.7	1.5	100.0
70세 이상	45.2	38.4	6.3	6.3	3.2	0.6	100.0

5. 취업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 분포

앞의 연령별 직업구조와 산업구조 분석에서 만50세 이상의 취업자에서 농업, 어업, 임업의 종사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에 따른 연령별 거주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3>은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취업자의 거주지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거의 3배에 달한다. 남성 취업자 230, 52명 중 도시거주자는 171,555(74.4%), 농촌거주자는 58,968명(25.6%)이며, 여성취업자 149,210명 중 도시거주자는 102,660명(68.8%), 농촌거주자는 46,500명(31.2%)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되며, 오히려 만6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 거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도 만60세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보다 농촌거주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60세 이상에서 도시와 농촌 거주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우 농촌 노인 여성이 도시의 노인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14>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백분비)

	전체		남자(60.7%)		여자(39.3%)		합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72.2	27.8	74.4	25.6	68.8	31.2	100.0
30세 미만	84.9	15.1	82.1	17.9	87.4	12.6	100.0
30-39세	82.2	17.8	82.0	18.0	82.6	17.4	100.0
40-49세	77.9	22.1	79.7	20.3	74.8	25.2	100.0
50-59세	66.4	33.6	72.1	27.9	56.1	43.2	100.0
60-69세	36.4	63.6	45.3	54.7	24.7	75.2	100.0
70세 이상	15.8	84.2	18.4	81.6	12.8	87.2	100.0

IV.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거주지별 근로장소 유형

1. 성별 연령별 근로장소 분포

<표 14>는 성별로 본 근로장소의 분포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업장, 자기 집, 남의 집 그리고 야외작업현장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반면, 거리와 운송수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다. 야외작업현장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좀더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표 15> 성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남성	70.0	2.6	1.3	4.0	18.4	3.7	100.0
여성	70.7	4.8	2.9	2.6	18.8	0.2	100.0

<표 15> 연령별로 분석한 취업자의 근로장소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낮아지며,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자기집과 거리에서 근무할 확률은 50대까지 계속 높아진 후 감소한다. 남의 집에서 일할 가능성은 자신의 집에서 일할 가능성보다는 작은 변동을 보이지만, 40대까지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40대까지 증가하다가 낮아진다.

<표 16> 연령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30세 미만	90.5	1.1	1.7	2.2	3.7	0.9	100.0
30-39세	82.5	2.5	1.9	3.6	7.4	2.2	100.0
40-49세	73.7	3.8	2.3	4.0	13.3	3.0	100.0
50-59세	59.0	5.7	2.1	4.3	25.4	3.5	100.0
60-69세	32.1	5.4	1.2	2.8	56.8	1.6	100.0
70세 이상	14.0	4.7	0.6	1.8	78.7	0.2	100.0

2. 교육수준별 거주지 별 근로장소 분포

<표 16>은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자기 집과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중학교 수준까지 높아지다가 고등학교 이후 수준에서는 낮아진다. 거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정점으로 낮아진다.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높아갈수록 낮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우리나라 교육수준 실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17>은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농촌의 취업자에 비해 도시의 취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마 이러한 차이는 농촌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높은 비율을 반영할 것이다. 도시의 취업자에 비해 농촌취업자는 자기집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만 남의 집, 거리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표 17> 교육수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무학	14.4	3.9	1.0	2.5	78.0	0.2	100.0
초등학교	30.2	5.0	1.7	3.0	58.7	1.4	100.0
중학교	53.0	6.3	2.6	4.8	29.5	3.9	100.0
고등학교	74.0	3.6	2.1	4.8	11.8	3.8	100.0
대학교	88.8	2.2	1.8	2.2	4.0	1.0	100.0
대학원	95.4	2.0	0.9	0.5	1.1	0.2	100.0

<표 18>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도시	82.0	2.8	2.2	4.0	6.4	2.6	100.0
농촌	39.9	5.3	1.0	2.0	50.2	1.6	100.0

3. 직업별 근로장소 분포

<표 18>은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의회의원, 전문가, 사무직 등의 직업을 가진 취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90%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기술공,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단순노무직, 그리고 농업어업 순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불과 10.5%에 불과하다. 자기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서비스직과 판매직이며,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기술공과 기능원이다. 거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판매직과 장치 기계조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높다. 야외작업 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과 기능원이 높다. 운송수단

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장치 기계 조작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비교적 높을 뿐, 다른 직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매우 낮은 편이다.

<표 19 >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의회의원	90.7	2.9	0.7	0.4	5.0	0.3	100.0
전문가	95.7	2.6	0.5	0.2	1.1	0.0	100.0
기술공	87.1	2.8	4.5	2.1	3.0	0.5	100.0
사무직	95.9	1.5	0.5	0.9	1.0	0.2	100.0
서비스직	84.3	9.6	2.8	2.1	0.8	0.3	100.0
판매직	77.3	7.2	2.1	11.4	1.2	0.8	100.0
농업어업	10.5	1.9	0.2	0.1	87.3	0.1	100.0
기능원	74.3	3.9	4.1	1.2	16.2	0.2	100.0
장치 기계조작	66.4	1.5	0.5	8.5	5.7	17.5	100.0
단순노무	55.6	2.8	5.8	9.5	23.7	2.7	100.0
분류불능	94.3	2.0	0.5	0.8	1.4	0.9	100.0

4. 산업별 근로장소 분포

<표 19>은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취업자들은 약 90% 이상이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기타 공공수리 등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이 80%대의 높은 확률을 보인다. 통신업 종사자는 약 74%, 건설업 종사자는 약 51.6%,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는 단지 11%만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기 집에서 근무할 확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확률(11.3%)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공공수리, 도매 및 소매업 등이 5%이상의 수준을 보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집단은 5%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남의 집에서 근무하는 확률이 5%이상인 산업부문의 종사자는 단지 교육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뿐이며 나머지 산업부문의 종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남의 집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이거나 과외선생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거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종사자들은 운수업, 통신업이며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 산업 종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종사자들은 5%미만이 거리에서 근무한다.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들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설업 종사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종사자가 5%를 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종사자들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5%가 안 된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운수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통신업 종사자들이 약 6.7%로 5%를 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1% 이하이다.

<표 20 >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농업, 임업, 어업	11.0	1.9	0.2	0.1	86.6	0.2	100.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93.4	2.2	0.7	1.1	1.8	0.8	100.0
건설업	51.6	1.0	3.8	1.5	41.0	1.1	100.0
도매및 소매업	80.1	6.1	1.8	9.1	1.5	1.5	100.0
숙박및 음식점업	82.9	11.3	2.7	2.6	0.3	0.2	100.0
운수업	40.4	0.8	0.9	17.4	4.5	35.9	100.0
통신업	74.0	0.7	1.3	13.9	3.5	6.7	100.0
금융 및 보험업	88.4	0.4	1.8	8.6	0.6	0.2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92.2	3.1	1.4	1.0	1.9	0.4	100.0
사업 서비스업	87.2	2.0	2.0	1.4	7.1	0.3	100.0
공공행정	89.4	0.2	0.6	4.5	4.7	0.6	100.0
교육서비스업	89.6	2.6	5.6	1.1	0.3	0.9	1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4	1.6	0.8	0.4	0.2	0.6	100.0
오락문화	89.8	4.0	0.8	1.0	4.0	0.5	100.0
기타 공공수리	81.1	9.7	2.9	2.5	2.7	1.2	100.0
분류불능	47.8	7.8	41.7	1.1	1.3	0.3	100.0

5. 종사상 지위별 근로장소 분포

<표 20>은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장소를 나타낸다. 임금 노동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다음으로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다음이 거리, 운송수단, 남의 집 그리고 자기 집 순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다음으로 자기 집, 야외작업현장, 남의 집, 거리, 운송수단의 순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장과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비슷한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거리, 운송수단, 남의 집 순이다. 하지만 무급가족 종사자는 야외작업현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업장, 자기집, 거리, 남의 집, 그리고 운송수단 순이다.

<표 2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백분비)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임금노동자	86.1	0.5	1.9	3.0	6.3	2.2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9	9.0	2.5	6.2	39.6	3.8	100.0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88.2	4.9	1.3	0.9	4.1	0.5	100.0
무급가족 종사자	34.6	8.3	0.7	1.4	54.9	0.2	100.0

V. 마치는 말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부문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은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이래 가장 높지만 계속 감소하여 왔다. 이 부문에 관련되는 직업군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도 계속 감소했지만, 이상하게도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증가는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를테면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의 감소는 직업부문에서 판매종사자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 및 직업 종사자의 비율은 2000년에 감소하였다가 2005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사자 지위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순위가 달라진다. 남녀 모두 임금봉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의 순위에서 남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가, 여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한다. 이는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남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도 2005년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반면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라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의 구조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직업군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농업, 어업 그리고 단순 노무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산업부문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서비스산업 관련 부문인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부문 등은 연령이 낮은 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부문은 베이비붐세대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베이비붐이전세대에서는 갑자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러한 상이한 연령별 직업, 산업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연령별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령별 교육수준 차이는 매우 현격하다. 만60세 이전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62%이고 대학이상 교육수준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약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인 2005년 만40-49세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불과 7.3%만이 초등학교 수준 이하였고, 약 33.6%가 대학 이상의 수준을 받았다. 그리고 30-39세는 약 52.9%, 30세 미만은 약 65.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불과 1%가 안 되었다.

취업자의 거주지 분포에서도 도시가 농촌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러한 차이는 감소되며, 60세 이상의 취업자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비율이 도시의 비율보다 더 높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는 농촌의 여성노인이 도시의 여성

노인보다 훨씬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근로 장소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녀 취업자 모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가장 높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거리와 운송수단에서, 여성은 남성이 비해 자기 집과 남의 집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았으며,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농업임업어업등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수준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에서 그리고 낮을수록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교육수준과 연령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직업별 근로 장소의 분석결과는 농업어업, 판매직, 장치 기계 조작, 기능원 그리고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업부문의 종사자는 80% 이상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어업, 단순노무직, 기능원 등은 근로 장소가 야외작업현장에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려 87.3%가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한다. 장치 기계조작 직업군은 운송수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산업별 근로 장소 분석에 따르면, 직업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업, 어업, 임업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 종사자들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특성상 거리와 운송수단이 근무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네 개의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80%가 넘는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별 근로 장소 분석에서는 임금노동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사업장보다 오히려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이것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근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환, 2001. “금융인력 실업 및 재취업 대책,” 한국금융연구원편, 주간금융동향 (2001.8).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집 6호: 153-186.
- 은기수 2002 “경제활동: 직업과 산업” 한국의 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315-348.
- 이종선 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사회학 36집 3호: 25-45.
- 정이환, 2004,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집 4호: 159-186.
- 정이환, 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요인” 한국사회학 36집 1호: 83-112.
- 조혜선, 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집 1호: 145-169.
- 채구목, 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집 5호: 143-169.
- 최문경,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집 1호: 21-51.
-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시장현황과 고용정책의 과제.